

# 국제화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곽 영 구

지난 연말경 미국의 Schotland Business Research사로부터 '아시아의 플라스틱산업 현황과 사업 전망'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한국포장산업에 대해 강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세미나 참석으로 한국포장협회에 잠재적 이익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고, 항공료와 체제비를 제공한다는 다소 유혹적인 조건이 달려 있었다. 세미나 개최일자는 94년 3월 23, 24일이었다. 초청을 받던 당시만 해도 시간 여유가 있었고, 한편 그러한 기회를 통해 미국연포장협회측과 만나 양국 협회간 제휴를 논의, 한국포장협회가 대외활동을 활발히 펼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될 듯해서 세미나 참석을 일단 수락했다.

세미나가 열리던 무렵의 지나간 한 달 동안 새로 옮겨간 (주)아식스에서 정신없이 바빠 지냈다. 아직 업무과약으로 바쁜 와중인데 미국 출장을 양해해준 경영진에 감사하며 비행기에 탑승했다. 비행기가 공중으로 이륙하자 지난 한 달 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쳤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일뿐 미래에 대한 구상, 세미나에 대한 걱정보다도 당장 육체적 피로가 물려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어느 창공에선가 눈을 뜨게 되었다. 상냥한 미소를 띤 여승무원이 저녁을 먹으라고 깨우며 더운 수건을 내밀었다. 흥미했던 정신을 수습하고 나니 닥치게 될 세미나에 대한 걱정이 일었다.

25년간의 직장생활을 통해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면 나의 미래는 스스로 해결될 것이라는 신념으로 살아왔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에게 주

어졌던 일들은 나 자신의 뜻보다는 '발령'이라는 명령서에 의해서 선택되어졌기 때문에 그 선택의 과정 속에 큰 고민이 없었던 듯하다.

한국포장협회의 상근부회장에서 현재의 직책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 세미나 원고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진행이 얼마간 지지부진했다. 원고의 가닥이 잘 잡히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자료정리를 도와줄 여직원이 오락가락해 모든 것을 혼자 챙겨야 했다. 집에 있는 여비서(?)를 동원하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시간에 쫓겼다. 그래서 세미나 주최측에 나를 소개해주었던 미국 친구에게 직장이 바뀌어서 갈 수 없다는 내용으로 팩스를 보냈다. 그러자 장문의 회신이 왔다. 이미 프로그램이 배포되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을 뿐더러, 이제와서 불참하게 되면 한국의 국민성까지 들먹여져 욕을 보니 꼭 참석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애초 강연 요청을 수락했던 것을 후회해도 때는 늦었다.

현지에 도착해서 30분 안에 준비된 원고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궁리하고, 원고를 가지고 시간을 재어 가며 호텔방에서 목이 아프도록 발표 연습을 했다.

세미나는 다음과 같이 크게 6개 부문으로 주제가 나뉘어져 진행되었다.

- 1) Keynote session
- 2) Asian market trends and statistics
- 3) Strategies for end-product manufacturing, marketing and sales
- 4) Doing business in mainland China

and Taiwan

5) Asian national markets-Profiling needs and business opportunities

6) Asian machinery markets

내 차례는 첫날 세번째였다. 주제별 발표가 끝나면 패널 토론이 이어지는데 발표도 발표지만 패널 토론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앞섰다. 앞서 진행되는 내용을 보니 날카로운 질문이 Coffee break 시간을 넘겨 계속되었다. 그리고 벌써 단골 질문자가 나왔다. 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의 참가자가 단골이었다. 토론이 진지하고 매끄럽게 운영되는 것을 볼 때 민주주의 문화가 잘 발달되었음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내 차례가 되었다. 포괄적인 내용의 나열을 지양하고 포장가공기계 부문에 초점을 맞춰 발표한 것이 비교적 잘 되었다는 자위감을 갖게 만들었다. 품질과 가격, 지리적 측면 등 한국과 미국의 장점을 결합시키면 중국시장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을 결론삼아 강조했다. 포장산업에 있어서 한·미 양국의 협력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미리 성안기계공업(주)의 신동호 사장의 자문을 구해 데이터를 제시한 게 적중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수준과 현황을 OHP 필름과 슬라이드 자료를 통해 설명해 나가는 도중에 발표 시간이 다되었다고 한다. 남은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저 끝내고 연단을 내려오니 지난 석달 동안 묵었던 체증이 다 가시는 듯 시원했다.

근래 자주 들리는 말 가운데 하나가 국제화라는 용어이다. 언필칭 세계인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유행이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는 바로 우리가 국제화되기 위해

서는 외국어 구사 능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외교무대에서 국제회의의 의장이 인도나 파키스탄 대표가 많은 이유는 그들의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도 한몫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국제화는 구두선으로 되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 국내의 대체적인 행편을 보면 자기가 속한 집단 안에서만 외국어 실력을 겨루는 정도에 그쳤었다. 모집단이 더 큰 세계에서 진정으로 겨룰 수 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국제적인 감각, 전문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세미나의 모든 발제자 자료에 대해 사전에 주최측에서 소유권을 갖겠다고 해 사인을 해주었다. 비행기 티켓값이겠거니 생각하고, 그러나 국내의 시장정보들이 미국내 관련 업계에 제공되는 것도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한편으로 그들의 철저한 일 처리에 대해 수긍하며, 관련 자료를 한국포장협회에서 퍼내는 월간 『포장정보』에의 게재 가능성을 타진하니 쉽게 수락했다. 앞으로 자료를 간추려 실음으로써 국내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끝으로 이번 세미나 참석에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준 한국포장협회 한용교 회장님과 자료 준비에 조력해 준 한국포장기술연구소 김영호 소장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자료정리에 애쓴 월간 『포장정보』 편집부에 고마움을 표하고, 한 주일간 자리를 비운데 대해 아식스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필자는 현재 (주)아식스 대표이사로서 있다. 이 글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세미나의 강연자로 초청받았을 당시에는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재직중이었다.

〈편집자주〉